

미세먼지 잡는 도시숲 늘린다

전북도, 2022년까지 1280억 투자 조성 열섬 완화 효과 등 기후변화 대응 체계화

전북도는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열섬 완화 등 기후변화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2022년까지 4년간 1,280억 원을 투입하여 도시숲을 확대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도심내 우거진 숲과 녹지공간의 미세먼지 흡수 흡착 기능과 폭염완화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생활권 주변에 매년 320억 원 투자하여 도시숲 103ha, 가로수 128km, 명상숲 121개교, 마을숲 31개소를 조성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억이 증액된 250억을 투입해 작년말 새롭게 발굴하고 국비를 확보한 도시 바람길 숲 및 미세먼지 차단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바람길 숲 1개소 및 미세먼지 차단 숲 3개소 6.5ha를 조성할 계획으로 도시 바람길 숲은 전국에서 도가 사업 제안과 선도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다.

도시 바람길 조성사업은 전주시 백제대로, 팔달로, 소풍길 등에 2019~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자해 숲을 조성한다.

바람길 숲의 특징은 외곽 산림에서 생성된 양질의 공기를 주민생활공간으로 공급하는 통로를 제공하여 도시내·외곽 산림의 신선하고 깨끗한 공기를 도심으로 유도·확산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에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자하여 노후 산단 주변 및 도시재생활성사업지에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차단숲은 생활권으로의 미세먼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원과 생활권 사이에 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 차단·흡착 효과를 높이는 사업으로 올해 실시할 계획 및 나무식재 등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규모 도시숲 조성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미세먼지 차단 숲, 폐선부지 등 2ha이상 대규모 면적에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3개 시·군에 조성한다.

먼저, 고창군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매입할 계획으로 고창읍 석교리 센트럴파크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행정사항 이행 및 실시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팔복동 공장주변에 문화공간과 더불어 미세먼지 차단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에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익산시에서는 동산동에서 춘포면 사이에 폐선부지를 활용해 도시숲을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나무식재 등 본격 조성해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일몰제 적용이후 사유지의 개발 수요가 증가되어 도시숲의 부족 현상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이 악화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을 계획하고 있는 시·군에 우선적으로 도시숲 조성 사업비를 배정해 산림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4개 시·군 유류지 구역구획에 녹색쌍지선, 가로수, 명상숲, 전통마을숲 복원 등 도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2005년부터 시작한 생활권 주변 도시숲 조성사업을 2022년까지 도시숲 465ha, 가로수 1,595km, 명상숲 152개소, 마을복원숲 57개소를 조성하게 된다.

전북도 감용민 환경녹지국장은 "우리 도는 민선7기 들어 생활권 주변에 도시숲 확대 조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미세먼지가 없는 쾌적한 전북 만들기는 물론, 도시숲 이용객들에게 제대로 된 휴식과 힐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오늘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전북도내 191개 투표소서 실시

투표시간 오후 5시까지 신분증 필히 지참해야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투표가 13일 전북지역 19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12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2회 조합장 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선거인은 신분증을 가지고 선거인명부가 등재된 해당 구·시·군의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가 각 선거인에게 발송한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도 투표소 주소와 약도를 조회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법인 선거인(대표자)의 경우 법인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대표자 신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투표소에서는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를 사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거인을 조회하고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된다. 통합선거인명부와 투표용지발급기는 2013년부터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에 도입돼 선거인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하루 앞둔 12일 전북 전주시 전주농협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소를 설치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각 조합에 등록된 조합원이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의 투표 편의성과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함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

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등은 무효가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투표가 마감되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해 각 후보자가 선명한 개표참관인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표가 진행

된다. 개표 결과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선거위원회는 선거공보 등을 통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본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 3·1운동, 대학생들 몸짓으로 부활

오늘 전북대 분수대·전주대 학생화관앞에서 플래시몹 행사

'전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플래시몹 행사가 13일 오후 전북대학교 분수대와 전주대학교 학생화관 앞에서 동시에 열린다.

전주 3·1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 장날에 천도교와 개신교도, 학생들이 남부시장에서 태극기를 나눠 주면서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 전북계려하나의

대학생 모임인 '전북지역 대학생 계려하나'는 3·1정신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독립의 함성에서 평화와 통일로'를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독립선언서 낭독, 애국가 제창, 플래시몹,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된다.

플래시몹에는 전북지역 대학생 계

려하나 회원들을 비롯해 전북대 동아리 '갯티'와 전주대 문화융합대학 학생회 등 대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다.

전북 대학생 계려하나 관계자는 "3·1정신의 현재 의미를 되살려 평화와 통일로 민족의 새로운 100년을 열기 위한 몸짓을 기획했다"며 "그 동안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3·1운동 기념행사가 없었던 점에 대한 성찰"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구성 문 대통령, 손학규 제안 수용 지지

말레이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제안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수용하라고 지시했다.

뉴스에 따르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전 순방지인 브루나이 현지에서 김수현 정책실장으로부터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보고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기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기존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새로 만들어질 범 국가적 기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3면 - 최후열 도의원 "새민금 챔버리 기반시설 적기 공급"

6면 - 전북 농관원, 로컬푸드직매장 협업 안전관리 협의회 추진

여름방이나 가을까?

관촌 사선대
2천년전 네 신선과 네 선녀의 전설을 간직한 사선대는 조각공원 및 체육시설과, 청소년 수련원, 특색문화체험장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전담 구담마을
섬진강 강변과 산이 어우러져 한쪽의 수채화를 담아 낸 듯한 마을로 포장하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옥정호 순환도로 드라이브길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국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이 길은 수목산수화에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아냅니다.

옥정호 붕어섬(외얏날)
호수 속에 있는 신비로운 섬! 사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봄과 가을에는 물안개로 풍경이 절정에 이릅니다.

임실군